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최영임 장휘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남: 185명, 여: 199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다섯 가지 성격특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하였고, 남성은 더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을 그리고 여성은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어렵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남녀 모두 더 낮은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과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는 성차가 있었다. 이성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에서는 낮은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갖는 남성과 낮은 외향성과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갖는 여성이 더 큰 어려움을 나타내어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 의사소통을 어렵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다섯 가지 성격특성에서의 패턴을 확인한 결과 동성과 이성에 대해 남녀 모두 일관성 있게 외향성이 낮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이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을 가장 어렵다고 지각하였으나 호감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는 차이가 있어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 지각 정도에 따라 각기 상이한 패턴이 도출되었다.

주요어: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 다섯 가지 성격특성, 동성과의 의사소통, 이성과의 의사소통

타인과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부호화와 해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반면, 후자는 듣는 사람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상징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

하는 과정에 해당한다(장휘숙, 2002).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부호화하고 그것을 해독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각한다면, 그 사람은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된다(Edwards, R., Bello, R., Brandau-Brown,

*교신저자: 장휘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E-mail : hsjang@cnu.ac.kr

F., & Hollems, D., 2001; Edwards & Hamilton, 2004).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이란 타인과 의사소통할 때 타인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부호화하고 부호화한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을 어렵다고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어렵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시에 자주 어색함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의사소통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결여한다거나 부정확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의사소통 자체를 어렵다고 지각함으로써 개인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철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관련된 변인을 확인하는 것은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에 관한 연구로서 Edwards(1998)는 175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개의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모호한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남녀 모두 동성보다는 이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남녀를 비교했을 때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동성보다는 이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하였고 여성들은 이성보다는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하여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힘과 우월성을 과시하는 대화전략을 사용하고 여성들은 관계적 친밀성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대화한다(Maltz

& Borker, 1982). Tannen(1993)에 의하면, 언어적 메시지를 해석할 때도 남성들은 힘에 기초하여 메시지를 해석하기 때문에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해 대화상대자가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지를 판단하는 반면, 여성들은 전달되는 메시지가 나를 지원하고 협조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차이를 보여 강한 성차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 지각에서도 남녀가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증거로서 남녀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을 연구한 최영임과 장휘숙(2006) 및 Edwards와 Hamilton(2004)의 연구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Edwards(1998)의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 속에 타인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하고 메시지에서 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위로하려고 하는 것 같은 협조적, 배려적 의도를 추론해내는 사람이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더 적게 지각한다고 밝혀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과 성격특성과의 관련성을 시사하였다. 그 이유는 자기주장성이나 통제는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관련된 특성이고, 타인에 대한 신뢰와 관심 및 배려는 호감성과 관련된 특성이기 때문이다(McCrae & Costa, 1990, 2003). 또한 Edwards(1998)가 사용한 네 개의 가상적 시나리오 중 두개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남녀 대학생을 연구한 Edwards와 Hamilton(2004)도 메시지의 해석 자체보다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고독감이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성격특성들이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일찍이 McCroskey와 Ralph 및 Barrick(1970)은 의사소통 불안이 외향성과 부적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Keaten, Kelly, Begnal, Heller와 Walker(1993)는 의사소통 불안과 과묵함에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는가 하면 최영임과 장휘숙(2006)은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 지각과 외향성 및 정서적 불안정성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성격특성과 의사소통 능력 역시 서로 관련되어 있다. Richmond와 McCroskey와 McCroskey(1989) 및 안선경과 허경호(2004)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이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Edwards 등(2001)은 개인의 생물학적 성보다 성격특성이 메시지 해석의 더 나은 예언자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적절한 자기노출이 가능한 반면,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노출 능력이 저조하므로 외향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은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같이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의사소통능력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한두 가지의 성격특성과의 관계만을 연구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Big Five 성격특성 즉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다섯 가지 성격특성 전체와의 관련성을 연구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사회적 관계

를 철회하게 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성격특성에서의 성차를 확인하고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동시에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의 정도에 따른 성격특성의 프로파일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미 선행연구(최영임, 장휘숙, 2006; Edwards, 1998)를 통하여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과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동성과 이성을 구분하여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 규명하려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성격특성에서 성차가 있는가?
2.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개인의 성격특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개인의 성격 프로파일에서 차이가 있는가?

방법

연구대상자

C 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남녀 학생들을 표집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한 학생을 제외한 최종 분석 대상자는 전체 384

명이었다. 이중 남학생은 185명이고 여학생은 199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남성 21.849($SD=2.444$)세, 여성 20.236($SD=1.359$)세였다. 검사는 2006년 5월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당교수에 의해 실시되었고, 검사 실시 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척도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척도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Edwards와 Hamilton(2004)의 척도를 확장하여 최영임과 장휘숙(2006)이 개발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나는 동성(이성)과 의사소통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나는 동성(이성)이 나에게 하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동성과 여성에 대해 각각 5개의 문항씩, 전체 10개의 문항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α 로 계산한 내적 일관성 계수는 동성에 대한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 척도에서 .867이었고 여성에 대한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 척도에서는 .888이었다.

Big-Five 성격특성 척도

개인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NEO-PI의 1990년도 판에 기초하여 제작된 노동부(2000) 검사를 사용하였다.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다섯 가지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이 검사는 28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여 전체 18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향성은 온정성, 사교성, 리더십, 적극성, 긍정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29개의 문항을 포함하며, 호감성은 타인에 대한 신뢰, 도덕성, 타인에 대한 배려, 수용성, 겸손, 휴머니즘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고 33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또한 성실성은 유능감, 조직화 능력, 책임감, 목표지향성, 자기통제력, 완벽성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44개의 문항을 포함하며 정서적 불안정성은 불안, 분노, 우울, 자의식, 충동성,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고 37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그리고 상상력, 문화, 정서, 경험추구, 지적 호기심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29개의 문항을 포함하며 그 외 13개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문항과 3개의 부주의 문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Cronbach α 로 계산한 내적 일관성 계수는 외향성=.902, 호감성=.812, 성실성=.938, 정서적 불안정성=.920, 경험에 대한 개방성=.872이었다.

결 과

1.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개인의 성격특성에서의 성차

개인이 지각하는 의사소통 어려움은 동성과의 의사소통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뿐 아

나라 이성과의 의사소통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동성과 이성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서의 성차를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동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서 유의한 성차가 있었다 ($t=-4.916$, $df=382$, $p<.001$). 즉 남성들 보다 여성들이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였으나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 가지 성격특성에서의 성차를 확인한 결과 표 1에 제시된 바와같이 외향성($t=2.049$, $df=382$, $p<.05$), 호감성($t=2.317$, $df=382$, $p<.05$), 정서적 불안정성($t=-5.370$, $df=382$, $p<.001$)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남성들이 여성들 보다 외향성과 호감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정서적 불안정성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개인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1) 동성에 대한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

동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과 개인의 성격특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2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들은 동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과 외향성($r=-.382$, $p<.001$), 호감성($r=-.248$, $p<.001$), 성실성($r=-.341$, $p<.001$) 사이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정서적 불안정성($r=.337$,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지각하는 남성일수록 낮은 외향성과 호감성 및 성실성을 갖고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갖는다고 해석할

표 1.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성격특성에서의 차이

			N	평균(SD)	t값
의사소통 어려움	동성	남	185	1.857(.468)	-4.916***
		여	199	2.096(.484)	
	이성	남	185	2.391(.586)	0.194
		여	199	2.379(.596)	
성격특성	외향성	남	185	3.453(.439)	2.049*
		여	199	3.366(.386)	
	호감성	남	185	3.334(.297)	2.317*
		여	199	3.261(.317)	
	성실성	남	185	3.316(.424)	0.496
		여	199	3.296(.372)	
	정서적 불안정성	남	185	2.826(.438)	-5.370***
		여	199	3.062(.420)	
경험에 대한 개방성	남	185	3.416(.394)	-1.990	
	여	199	3.496(.397)		

* $p<.05$, ** $p<.01$, *** $p<.001$, 이하 동일함.

표 2. 동성에 대한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과 다섯 가지 성격특성들 간의 상관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443***	-.204**	-.202**	.310***	-.246***
외향성	-.382***		.113	.295***	-.323***	.273***
호감성	-.248***	.239***		.027	-.171*	.005
성실성	-.341***	.487***	.157*		-.393***	.236***
정서적 불안정성	.337***	-.414***	-.422***	-.523***		-.040
경험에 대한 개방성	-.116	.373***	.064	.325***	-.109	

대각선 아래: 남성, 대각선 위: 여성

수 있었다. 또한 여성들은 동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과 외향성($r=-.443, p<.001$)과 호감성($r=-.204, p<.01$), 성실성($r=-.202, p<.01$)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r=-.246, p<.001$) 사이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정서적 불안정성($r=.310,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지각하는 여성일수록 낮은 외향성과 호감성, 성실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니고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2) 이성에 대한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

이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과 다섯 가지 성격특성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남성들은 이성에 대한 의사

표 3. 이성에 대한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과 다섯 가지 성격특성들 간의 상관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507***	-.020	-.127	.366***	-.115
외향성	-.554***		.113	.295***	-.323***	.273***
호감성	-.165*	.239***		.027	-.171*	.005
성실성	-.435***	.487***	.157*		-.393***	.236***
정서적 불안정성	.413***	-.414***	-.422***	-.523***		-.040
경험에 대한 개방성	-.259***	.373***	.064	.325***	-.109	

대각선 아래: 남성, 대각선 위: 여성

소통 어려움 지각과 외향성($r=-.554, p<.001$), 호감성($r=-.165, p<.05$), 성실성($r=-.435, p<.001$), 경험에 대한 개방성($r=-.259, p<.001$) 사이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정서적 불안정성($r=.413,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이성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지각하는 남성일수록 낮은 외향성과 호감성, 성실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 이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과 외향성($r=-.507, p<.001$)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정서적 불안정성($r=.366, p<.001$)에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이성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지각하는 여성일수록 낮은 외향성과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성에 대한 여성들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과 호감성, 성실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남성들과는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3.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의 정도에 따른 성격특성 프로파일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 성격특성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

표 4. 남녀의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에 따른 외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의사소통 어려움	동성		이성	
		N	평균(SD)	N	평균(SD)
남	상	48	3.176(.413)	58	3.200(.451)
	중	75	3.506(.417)	43	3.357(.351)
	하	62	3.602(.389)	84	3.676(.354)
	전체	185	3.453(.439)	185	3.453(.439)
여	상	65	3.184(.347)	55	3.104(.344)
	중	74	3.318(.350)	47	3.341(.319)
	하	60	3.624(.332)	97	3.527(.354)
	전체	199	3.366(.386)	199	3.366(.386)

표 5. 남녀의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에 따른 호감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의사소통 어려움	동성		이성	
		N	평균(SD)	N	평균(SD)
남	상	48	3.263(.269)	58	3.316(.292)
	중	75	3.298(.266)	43	3.258(.273)
	하	62	3.432(.331)	84	3.385(.306)
	전체	185	3.334(.297)	185	3.334(.297)
여	상	65	3.189(.320)	55	3.274(.345)
	중	74	3.257(.278)	47	3.242(.283)
	하	60	3.344(.344)	97	3.263(.319)
	전체	199	3.261(.317)	199	3.261(.317)

표 6. 남녀의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에 따른 성실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의사소통 어려움	동성		이성	
		N	평균(SD)	N	평균(SD)
남	상	48	3.100(.327)	58	3.113(.360)
	중	75	3.324(.417)	43	3.269(.442)
	하	62	3.474(.434)	84	3.480(.393)
	전체	185	3.316(.424)	185	3.316(.424)
여	상	65	3.248(.344)	55	3.230(.381)
	중	74	3.256(.385)	47	3.251(.399)
	하	60	3.397(.371)	97	3.355(.347)
	전체	199	3.296(.372)	199	3.296(.372)

인하기 위하여 MANOVA를 실시하였다. 동성과 이성에 대해 의사소통 어려움을 지각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고, 성별에 따라서도 외향성, 호감성, 정서적 불안정성에서 유의한 성차가 있었으므로, 동성과 이성,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MANOVA를 실시하기에 앞서 변량의 동질성과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Box's M 검증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의 Box's M은 동성 36.023, $F=1.152(p>.05)$, 이성 31.262, $F=.997(p>.05)$ 이고, 여성의 Box's M은 동성 38.740, $F=1.244(p>.05)$, 이성 27.513, $F=.880(p>.05)$ 으로 변량-공변량 행렬이 동질적임을 가정할 수 있

표 7. 남녀의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에 따른 정서적 불안정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의사소통 어려움	동성		이성	
		N	평균(SD)	N	평균(SD)
남	상	48	3.013(.363)	58	3.013(.436)
	중	75	2.813(.447)	43	2.926(.369)
	하	62	2.697(.438)	84	2.646(.406)
	전체	185	2.826(.438)	185	2.826(.438)
여	상	65	3.210(.367)	55	3.263(.357)
	중	74	3.061(.376)	47	3.171(.370)
	하	60	2.903(.471)	97	2.894(.412)
	전체	199	3.062(.420)	199	3.062(.420)

표 8. 남녀의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에 따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의사소통 어려움	동성		이성	
		N	평균(SD)	N	평균(SD)
남	상	48	3.348(.355)	58	3.296(.373)
	중	75	3.382(.416)	43	3.403(.386)
	하	62	3.509(.384)	84	3.505(.394)
	전체	185	3.416(.394)	185	3.416(.394)
여	상	65	3.421(.398)	55	3.435(.411)
	중	74	3.455(.336)	47	3.535(.400)
	하	60	3.628(.437)	97	3.512(.388)
	전체	199	3.496(.397)	199	3.496(.397)

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는 남성의 경우 동성 183.027($p < .001$), 이성 156.230($p < .001$)이고, 여성의 경우 동성 80.964($p < .001$), 이성 87.823($p < .001$)으로 종속변인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MANOVA분석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표 4~8은 세 개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집단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다섯가지 성격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이다.

1) 동성에 대한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

동성에 대한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의 정도에 따른 다섯 가지의 성격특성에서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남성의 경우 Wilks Lambda = .779($p < .001$)로서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 가지의 성격특성들 중 어떤 성격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성격특성별로 단순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에 제시된 바와같이 동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의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 성격특성 즉, 외향성($F(2, 182)=15.933, p < .001$)과 호감성($F(2, 182)=5.548, p < .01$), 성실성($F(2, 182)=11.769, p < .001$) 및 정서적 불안정성($F(2, 182)=7.552, p < .001$)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동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을 가장 크게 지각하는 남성들은 어려움을 중간정도로 지각하는 남성들과 가장 적은 어려움을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낮은 외향성과 성실성을 지니고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을 가장 크게 지각하는 남성들과 중간 정도로 지각하는 남성들은 어려움을 가장 적게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낮은 호감성 지니고 있

표 9. 동성에 대한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에 따른 성격특성의 다변량 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Wilks Lambda	단변인 F	자유도	Tukey 사후분석
남성	외향성	.779***	15.933***	(2, 182)	상<중, 하
	호감성		5.548**		상, 중<하
	성실성		11.769***		상<중, 하
	정서적 불안정성		7.552***		상>중, 하
	경험에 대한 개방성		2.768		-
여성	외향성	.731***	26.685***	(2, 196)	상, 중<하
	호감성		3.830		-
	성실성		3.249		-
	정서적 불안정성		8.995***		상>하
	경험에 대한 개방성		5.066**		상, 중<하

단변인 F값은 $p < .01$ 인 경우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 이하 동일함

었다.

여성의 경우 Wilks Lambda=.731($p<.001$)로서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가지의 성격특성들 중 어떤 성격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성격특성별로 단순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향성($F(2, 196)=26.685, p<.001$)과 정서적 불안정성 ($F(2, 196)=8.995, p<.001$)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F(2, 196)=5.066,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동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을 가장 크게 지각하는 여성들과

중간 정도로 지각하는 여성들은 어려움을 가장 적게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낮은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을 가장 크게 지각하는 여성들은 어려움을 가장 적게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X축에 종속변인을 그리고 Y축에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집단의 표준화된 평균값을 제시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세 개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집단의 성격 패턴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림 1에 의하면, 동성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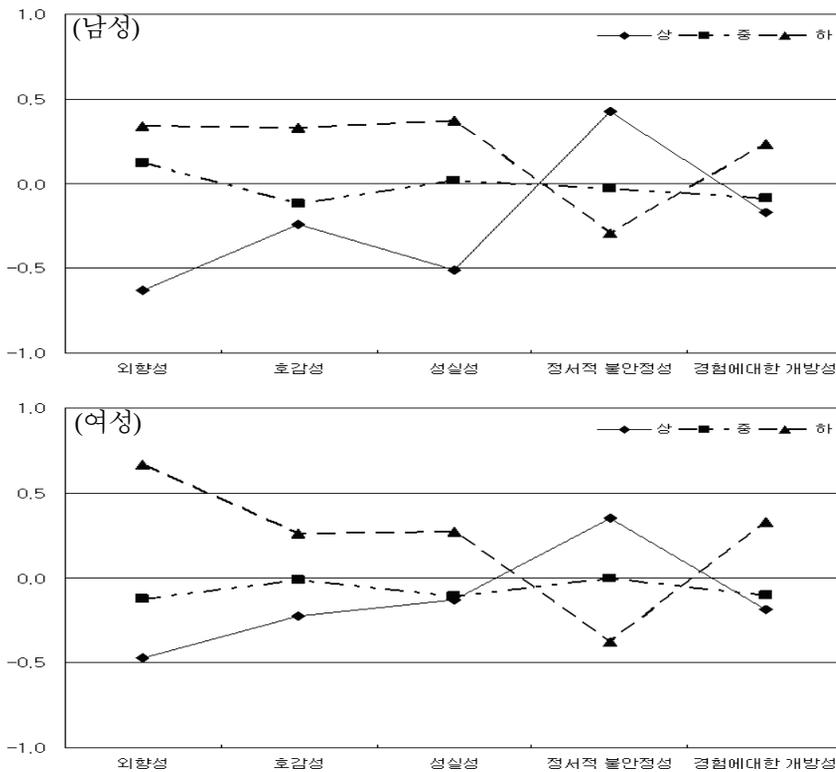


그림 1. 동성에 대한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에 따른 성격특성에서의 차이

표 10. 이성에 대한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에 따른 성격특성의 다변량 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Wilks Lambda	단변인 F	자유도	Tukey 사후분석
남성	외향성	.703***	27.761***	(2, 182)	상, 중<하
	호감성		2.802		-
	성실성		15.179***		상, 중<하
	정서적 불안정성		15.541***		상, 중>하
	경험에 대한 개방성		5.057**		상<하
여성	외향성	.696***	26.780***	(2, 196)	상<중<하
	호감성		.128		-
	성실성		2.455		-
	정서적 불안정성		18.270***		상, 중>하
	경험에 대한 개방성		.944		-

의사소통 어려움을 크게 지각하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과 유의하게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크게 지각하는 여성들은 유의하게 더 낮은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유의하게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에 따라 성격특성에서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였다.

2) 이성에 대한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

이성에 대한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의 정도에 따른 성격특성에서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남성의 경우 표 10에 제시된 바와같이 Wilks Lambda =.703($p<.001$)으로서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가지 성격특성 중 어떤 성격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성격특성별로 단순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따

라 호감성을 제외한 네 가지 성격특성, 즉 외향성($F(2, 182)=27.761, p<.001$)과 성실성($F(2, 182)=15.179, p<.001$), 정서적 불안정성($F(2, 182)=15.541, p<.001$)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F(2, 182)=5.057, p<.01$)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을 가장 크게 지각하는 남성들과 어려움을 중간정도로 지각하는 남성들이 가장 적은 어려움을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낮은 외향성과 성실성 그리고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성과의 의사소통시에 어려움을 가장 크게 지각하는 남성들이 가장 적은 어려움을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낮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니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표 10에 제시된 바와같이 Wilks Lambda=.696($p<.001$)로서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가지 성격특성 중 어떤 성격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성격특성별로 단순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의 정도에 따라 외향성($F(2, 196)=26.780, p<.001$)과 정서적 불안정성($F(2, 196)=18.270, p<.001$)에서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을 가장 크게 지각하는 여성들이 어려움을 중간정도로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그리고 어려움을 중간정도로 지각하는 여성

들이 가장 적은 어려움을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낮은 외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성과의 의사소통 시에 어려움을 가장 크게 지각하는 여성들과 어려움을 중간정도로 지각하는 여성들이 가장 적은 어려움을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크게 지각하는 남성들은 가장 적은 어려움을 지각하는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더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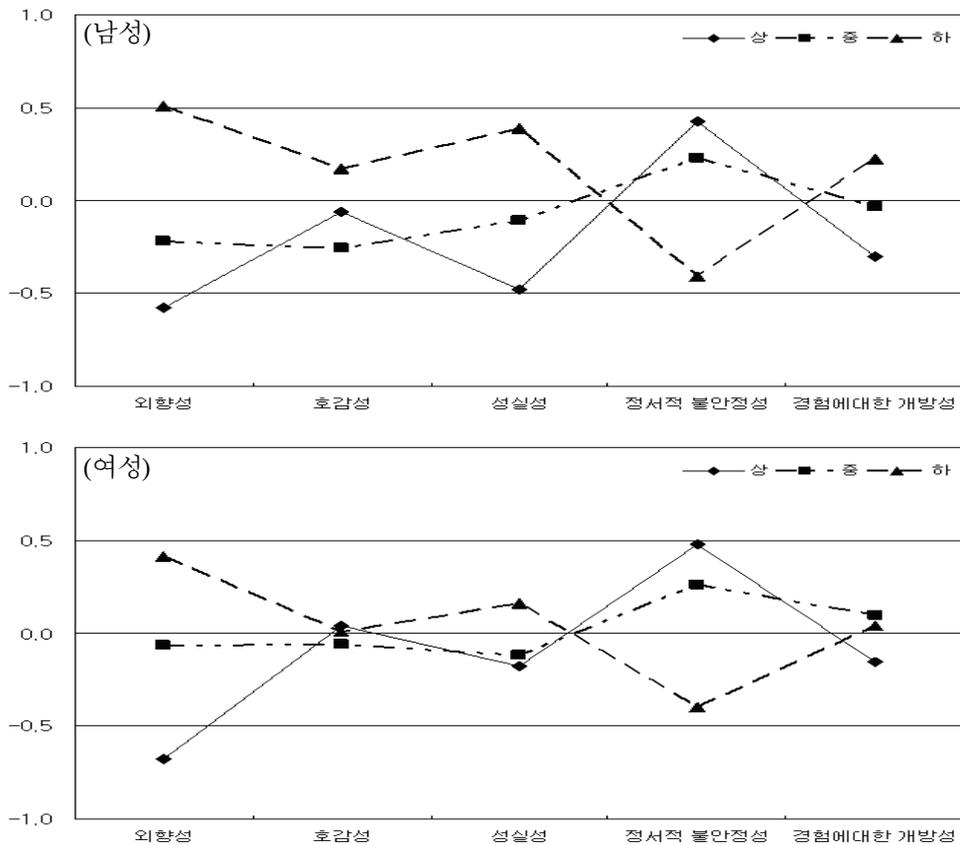


그림 2. 이성에 대한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에 따른 성격특성에서의 차이

은 외향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유의하게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크게 지각하는 여성들은 가장 적은 어려움을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외향성과 유의하게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논 의

이 연구는 남녀 대학생 384명(남: 185명, 여: 199명)을 대상으로 개인이 동성 및 이성에게 대해 지각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다섯 가지 성격특성 즉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의 성차를 확인하고 양자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과 다섯 가지 성격특성에서 성차가 있는지, 개인의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과 성격특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 성격특성의 패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척도와 Big Five 성격검사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하였으나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호감성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정서적 불안정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차이를 보였다.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성격특성과의 관계에서 남녀 모두 동성에 대한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과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사이에 유의한 부적 상관

을 나타내고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지각할수록 더 낮은 외향성과 호감성, 성실성 및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동성에 대한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사이에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지각할수록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에게 대한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과 성격특성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있었다. 즉 남성들은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과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여성들은 외향성과는 부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주어 남성과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이성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지각하는 남성들은 더 낮은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는 반면 이성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지각하는 여성들은 더 낮은 외향성과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에 따른 다섯 가지 성격패턴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의 정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가장 크게 어렵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은 보다 적은 어려움을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낮은 외향성, 호감성 및 성실성을 보이고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이는 반면,

이성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보다 많은 어려움을 지각하는 남성들은 보다 더 적은 어려움을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낮은 외향성, 성실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동성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을 지각하는 여성들은 보다 적은 어려움을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낮은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보이고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이는 반면, 이성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보다 많은 어려움을 지각하는 여성들은 보다 더 적은 어려움을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낮은 외향성과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남녀 모두 이성과의 의사소통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동성과의 의사소통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말을 생각나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Edwards와 Hamilton(2004) 및 최영임과 장휘숙(200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서, 최영임과 장휘숙(2006)이 설명한 것처럼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관계지향적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여성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여성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더 복잡하고 다중적인 메시지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dwards & Hamilton, 2004), 여성들은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들은 외향성과 호감성에서 여성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정서적 불안정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어 남녀 모두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성격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었

다.

남녀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및 정서적 불안정성은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 지각과 관련된 성격특성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이 높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낮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이 더 적어 선행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였다(안선경, 허경호, 2004; 최영임, 장휘숙, 2006; MaCroskey, Ralph & Barrick, 1970, Keaten 등, 1993; Edwards, 1998, 2000). 5요인 성격특성을 연구한 McCrae와 Costa(2003)에 의하면,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생각을 인정하며 타인의 말을 경청할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위트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호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신뢰, 배려, 수용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통제력을 지니고 책임감 있고 유능하며 조직화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높은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은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정서적 불안정성은 불안, 분노, 우울성향을 지니고 있고 충동적이며 자의식적일 뿐 아니라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더 큰 지각된 어려움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Eysenck, 1970, 1971).

그러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여성들의 동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및 남성들의 이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여성들은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게 지각하고 남성들은 이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게 지각한다는 Edwards

(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경험추구와 지적 호기심 및 상상력을 포함하기 때문에(McCrae & Costa, 2003), 경험에 대한 높은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들의 동성과의 의사소통과 남성들의 이성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여성들의 이성에 대한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과 관련된 성격특성이 외향성과 정서적 불안정성 뿐이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여성들은 남성들과 대화할 때 아직도 성역할 고정관념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에 미치는 성격특성들의 영향력은 남성들만큼 크지 않은 데 기인한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성과의 대화에 대한 여성들의 지각과 성격특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 보고된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의 정도에 따른 성격 프로파일에서의 차이는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개인의 성격특성이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결과였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성과 성역할 정체감과 관계 내에서만 연구되거나(Edwards, 1998; Edwards & Hamilton, 2004) 성격특성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한두 가지의 성격특성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최영임, 장휘숙, 2006; Edwards & Hamilton, 2004). 그러나 이 연구는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다섯 가지 성격특성 전체와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실제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만을 연구하였고 자기보고 척도만을 사용하여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을 측정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관찰이나 면접과 같은 방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연구방법을 다양화하고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과 함께 실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께 측정하여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노동부(2000). 직업선호도검사 실시요람.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안선경, 허경호(2004). 개인의 성격과 의사소통 능력간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8(2), 321-472.
- 장휘숙(2002). 여성심리학. 박영사
- 최영임, 장휘숙(2006).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성격특성이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2), 77-91.
- Edwards, R. (1998). The effects of gender, gender role, and values on the interpretation of message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7(1), 52-71.
- Edwards, R. (2000). Interpreting relational meanings: The influence of sex and gender-rol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7(1), 13-21.

- Edwards, R., Bello, R., Brandau-Brown, F., & Hollems, D. (2001). The effects of loneliness and verbal aggressiveness on message interpretation.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66, 139-150.
- Edwards, R., & Hamilton, M. A. (2004). You need to understand my gender role: An empirical test of Tannen's model of gender and communication. *Sex Roles*, 50(7/8), 491-504.
- Eysenck, H. J. (1970). *Readings in extraversion-introversion: Volume I*. New York: Wiley-Interscience.
- Eysenck, H. J. (1971). *Readings in extraversion-introversion: Volume II*. New York: Wiley-Interscience.
- Keaten, J., Kelly, L. A., Begnal, C., Heller, D., & Walker, A. (1993).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reticen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Miami Beach, FL, USA.
- Maltz, D. N., &orker, R. A. (1982). A cultural approach to male-female miscommunication. In J. J. Gumperz (Ed.), *Language and social identity*. 196-216.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rae, R. R., & Costa, P. T. Jr. (1990). *Personality in adulthood*. New York: Guilford.
- McCrae, R. R., & Costa, P. T. Jr. (2003). *Personality in adulthood: A five-factor theory perspective* (2nd ed.). New York: Guilford.
- McCroskey, J. C., Ralph, C. C., & Barrick, J. E. (1970). The effect of systematic desensitization on speech anxiety. *Speech Teacher*, 19, 32-36.
- Richmond, V. P., McCroskey, J. C., & McCroskey, L. L. (1989). An investigation of self-perceived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ersonality orientation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6, 28-36
- Tannen, D. (1993). The relativity of linguistic strategies: Rethinking power and solidarity in gender and dominance. In D. Tannen (Ed.), *Gender and conversational interaction*. 165-18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차 원고 접수: 2007. 1. 15

수정 원고 접수: 2007. 2. 16

최종 게재 결정: 2007. 2. 17

Perceived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Young-Im Choi Hwee-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gender difference in the perceived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the perceived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was found. The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e perceived difficulties in the same-sex communication have negative correlation with extraversion, agreeableness and faithfulness and the positive correlation with neuroticism in male and female. But in the opposite-sex one while male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extraversion, agreeableness, faithfulness, and openness to experiences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neuroticism, female has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neuroticism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extraversion. MANOVA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ttern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perceived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Key words: perceived communication difficultie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ame-sex communication, opposite-sex communication